

## 열린 우리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중앙위원 초청 만찬

보통 메모 없이 잘하는데 오늘은 메모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선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당선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언제나 기회는 옵니다. 이 자리에 당선자로 앉아 계신 분들도 언제 이렇게 당선이 되리라 정확하게 예측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성심껏 노력하면 기회는 옵니다. 개인 개인도 기쁘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날이고 뜻 깊은 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이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라 했는데 진짜 국민이 주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국민이 무섭다는 걸 실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덕담 몇 마디하고 말씀 듣고 마치면서 답변삼아 하는 게 순서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취재진의 관심 모으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총리 지명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차원에서 순서를 바꿔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뒤에 가서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총리 지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총리 지명에 관한 문제가 여러 사람의 관심사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일찍 나왔는가 하면 입각문제와 더불어 하나씩 가닥이 잡혀야 당직과 의회직에 대한 교통정리가 용이하지 않을까하고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했습니다. 입각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대로 방향을 잡았고 총리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는 논의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면위로 부상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 중 6.5재보선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더 뜨거워져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총리지명은 아직 누구로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5재보선 치르고 난 다음 당 지도부와 상의해 확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내놓고, 지명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과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말씀드리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간에 협의 협력하는 것이 상생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이 공격적 시비, 발목잡기의 도구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생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상호간 협의해서 협력하는 것이 상생이지, 발목잡기 하고 시비하는 것이 상생이 아닙니다. 상생이 되려면 비판과 반대를 정책으로 해야 의견합치를 모으는 것이 상생이고 정당당하게 국정에 대해 심판 받고 타협하는 것이 상생입니다.

감정적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면 그것은 해결책 없는 시비

거리가 됩니다. 상생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의견 있을시 정책으로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김혁규 당선자가 거론됐느냐. 열린 우리당은 목표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전국 인재를 골고루 중용하고 전 국민위해 봉사하고 전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 전국정당 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 지역통합을 이뤄내는 게 열린 우리당의 대의입니다. 그걸 위해 정무직, 정부 주요직에 전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 인재를 고르게 안배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능력, 덕성을 고려 해야지 연고주의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데, 상생한다더니 왜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지명해 일을 하려하는가, 이걸 합당하지 않습니다. 능력, 덕성 그 밖의 이유가 타당한지 봐야지 상생을 이렇게 왜곡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의 지지가 높은 지역의 인재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고주의입니다. 영남이 영원한 안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불모로 한 지역주의 정치를 오래해서는 국가분열이고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낡은 기득권 정치, 지역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낡은 정치는 안 됩니다.

**평가는 역사와 국민의 관점에서**

배신자, 배신자 하는데 배신자냐 아니냐는, 역사와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작은 이해집단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90년 3당 합당은 그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쿠테타 세력과 결집한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지역대결을 고착하고 항구적인 집권을 위해 국민적 배신행위였습니다. 그래서 3당 합당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지금도 고향에서는 아직 저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정

치인에게 배신자냐, 아니냐는 역사와 국민의 기준이지, 폐쇄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거나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역구도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구도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건 열린 우리당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의를 ?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김혁규 당선자는 우리당 여론의지지가 3등일 때, 아직 어려울 때 결단해 입당했습니다. 대의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배신자는 대의를 좇지 않고 전혀 손해 보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혁규 당선자에 대해 배신자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 왔고, 많은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그 동안 민주대연합을 주장해왔습니다. 90년 3당 합당시 민주전선이 붕괴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대연합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90년 3당 합당을 정상적인 정치구조로 할 수만 있다면 복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나라당 민주계가 과거의 과오를 씻고 우리정치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거꾸로 배신자라며 공직임명을 사전에 혼드는 것은 몇몇한 일이 아닙니다. 6.5 재·보선이 지나고 난 뒤 당 지도부, 선배들과 협의해 결정하겠습니다.